

HWASEUNG LIFE MAGAZINE

화승엔진

2021 Autumn Vol.64



화승그룹

CONTENTS

2021 Autumn Vol.64



자동차가 필수재인 세상이 올 거라는
화승의 선구안이 지금의 경쟁력을 낳았습니다.
산업재뿐 아니라 자동차용 고무 부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승,
더 큰 성장을 위한 고무적인 질주는 계속됩니다.

총괄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부장	2021년 10월 6일 발행(정보간행물)
화승그룹 홍보팀 심일욱 과장	
화승R&A 이지학(기획팀 과장)	신고번호 연제, 바00003 신고일자 2016년 8월 30일
화승소재 임상호(영업관리팀 팀장)	발행인 현지호 편집인 김정식
화승T&C 홍성열(관리팀 대리)	기획·진행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심일욱
화승네트웍스 강우준(전략기획팀 대리)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02-515-3681)
화승인더스트리 정성욱(IR/경영관리팀 매니저)	인쇄 우일인쇄
화승케미칼 한동민(경영지원팀 매니저)	펴낸 곳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차장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미국 화승코퍼레이션 ARHQ 최일영 차장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중국 화승코퍼레이션 CRHQ 문지훈 과장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메일 illwook.sim@hscorp.com

SPACE

02	Let's 70	과거의 유산 미래의 씨앗 '화승 나이키'
04	화승스케치	기술이 모이면 예술이 됩니다

10	ROAD 01	고무적 화승
14	ROAD 02	화승, 자동차 부품으로 고무적 성장 엔진을 장착하다
18	Photo+Commentary	자동차 부품사업의 이야기 퍼즐을 맞추다
20	ROAD 03	세상 모든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부품이다
24	ROAD 04	화승 자동차사업의 미래, 美 85번 고속도로에 달렸다
28	RESEARCH	긴가민가했던 친환경 전기차 시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은?
32	희망 엔진	고무를 더 고무답게 웨더스트립 코팅제, COATWELL
36	ROUTE	지속가능할 미래를 준비하는 화승의 가을

SHUTTLE

42	편편 트래블	감성이 몽글몽글 카라반 가족여행
48	전화승이 짚한 사람①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 전시 개막 문경원·전준호 현대미술 작가
49	전화승이 짚한 사람②	한국적 전통문화를 세계적 언어로 표현하다 양태오 태오양스튜디오 대표
56	화승인터뷰	청자에 美친 행복한 컬렉터를 만나다 주재윤 ㈜셀라돈 대표

STATION

64	和友동산	초록용단을 거닐며 초암정원을 누비다
70	전화승 큐레이션	메타버스, 미래로 가는 제3의 혁명
74	HWISEUNG NEWS	
76	즐거운 화승생활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과거의 유산 미래의 씨앗 ‘화승 나이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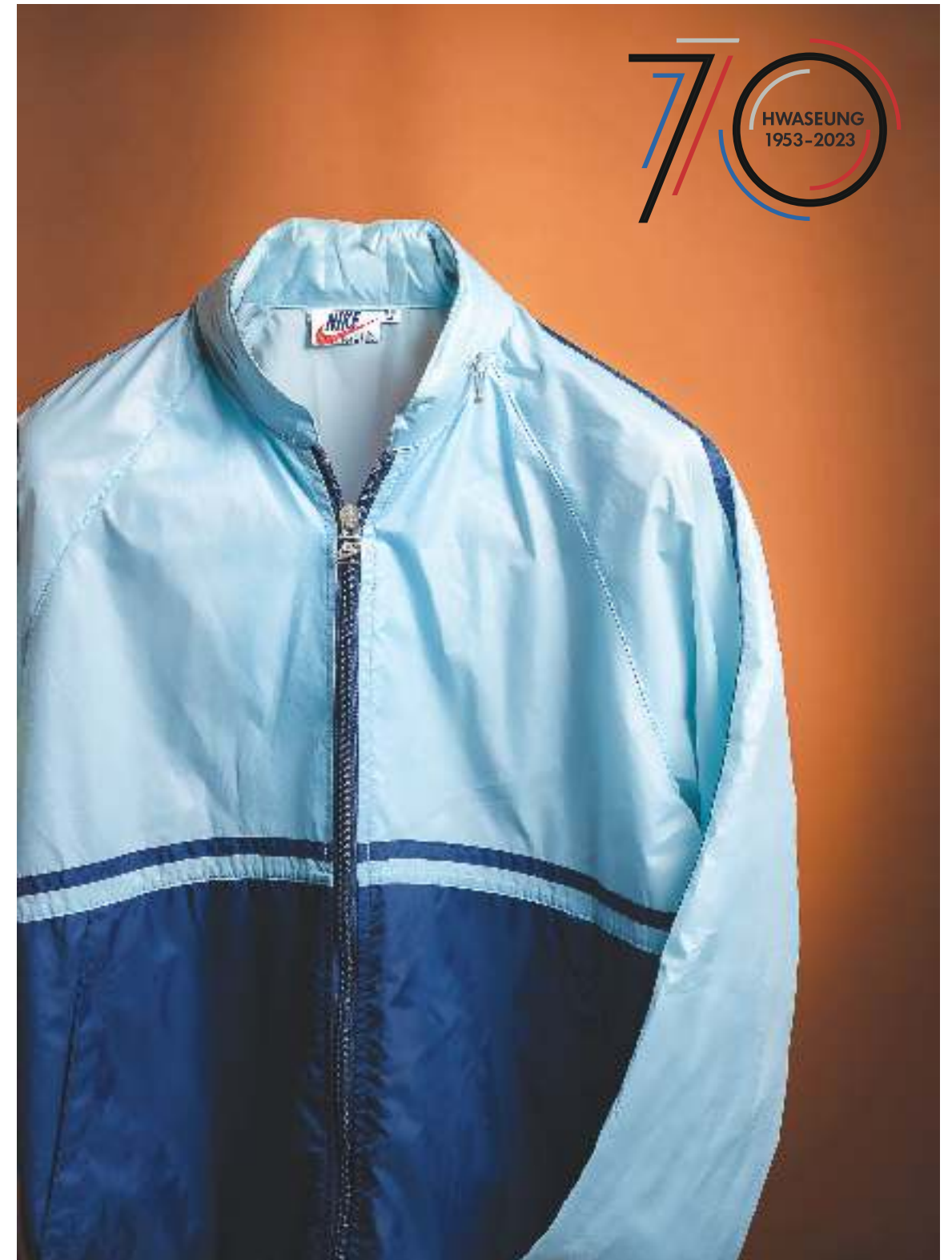
80년대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의
OEM 제조회사이자 판매처였던 화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트렌드를 전파했습니다.

나이키와 결별 후 화승은,
화승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했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화승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과거를 되짚어봅니다.



화승 70주년,
과거의 유산에
미래의 씨앗을
심어봅니다.



*본 제품은 1985년 (주)화승에서 생산한 나이키 자켓으로 화승그룹에 근무하셨던 사보 독자 박달수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기술이 모이면 예술이 됩니다

-화승의 현장美術

매일매일 시간이 모여 일상이 되고 삶이 완성되듯, 보통의 기술도 꾸준히, 평정심(平靜心)으로 하다보면 예술이 됩니다. 여기, 화승그룹 안의 수많은 기술이 모여 예술이 되는 현장의 풍경들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나무 한 그루보다
꾸밈 없는 나무들이 모인 길은 숲이 더 웅장하듯
소박하고 정직한 가장들의 하루하루가
매일 쌓이고, 함께 동작하는 이 곳,
화승의 일터 또한 웅장합니다.



“기술이 최고여!”
할머니의 잔소리가 울었습니다.
“존재는 오래되면 빛을 발한다”는
맹자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때론 넘실넘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출렁일 때도 있지만,
소박하게 꾸준히,
매일 굳건한 바닥을 딛고
내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닦다보면,
어느새 존재는 빛을 발합니다.



예술이 뭐 별거겠어요?
매일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 같다가도,
위로, 위로 치솟는 하얀 비닐들,
규칙적으로 도열한 검은 호스들을 보노라면
우리가 함께 만든 거대한 설치미술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니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숨어 있는 법.

수상한 시절일수록 내 마음의 핸들 꼭 잡고
오늘 삶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 보관을 위한 핸들 장치도
안전을 경고하는 현장 표지판도
매일 보고 지나치지만 오늘은 어떤가요?

익숙한 일상에서 낯선 것을 발견하는 눈,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SPACE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상징이자 동력이었던
신발사업에서 21세기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부품사업으로까지,
화승의 선구안은 살아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생각, 행동하는 능력이
창립 70주년을 바라보는 오늘의 화승을 만들었습니다.

고무적 화승

鼓舞的

고무나무 묘목이 아름다리가 되고 숲을 이룹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어우러져 거대한 숲이 되기까지
고무나무는,
거친 비바람도 맞고 모진 가뭄도 겪었을 것입니다.

2000년을 전후해 반(頒)신발 경영에 돌입했던
화승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 전자, 통신, 건설, 제지 등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눈부신 성과 뒤 눈물겨운 위기도 있었지만
도전의 경험들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고무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준 고무나무 덕에
인류는 신축성 있고 유연하며
방수, 방풍, 방진, 방음의 기능까지 고루 갖춘
지금의 고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질풍노도를 겪으며

화승은 스포츠패션 아웃도어,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고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결정, 결실은 위대합니다.

남아있는 건 선택에 따른 집중이고
집중을 위해 필요한 건 고무적인 도전일 것입니다.
화승이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질기고 유연한 이유입니다.

화승, 자동차 부품으로 고무적 성장 엔진을 장착하다

21세기 화승이 견재할 수 있는 건 한 우물에만 고여 있지 않아서이다.
근간이 되었던 신발사업에서 확장 가능할 수 있는 사업 소재들을 찾아내고
추진함으로써 지속성장해왔기 때문이다. 화승의 새로운 동력과 규모의 확장을
가져온 건 다름 아닌 자동차 부품사업, 그 성장의 자취를 되짚어보고
화승의 어떤 제품들이 자동차에 탑재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고무 소재 자동차 부품사업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

신발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자체 동력이라면 자동차는 사람을 싣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인간의 몸이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움직일 수 있듯 자동차 또한 30,000여 개의 부품들이 정교하게 조립되어야만 작동할 수 있다. 하나의 부품이라도 빠지거나 불량하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동차 부품들 중 고무 소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타이어를 비롯해 차체 곳곳에 탑재된 튜브, 방진고무, 웨더스트립, 호스, 캡, 오일씰, 링류 등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이 재편되는 가운데 고무를 소재로 한 신발사업을 펼쳐온 화승에게는 당대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고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으리라. 과열경쟁으로 부침이 심했던 신발사업과 오일쇼크라는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선구안이 있었던 화승은 1964년부터 東자표와 기차표, 케미컬슈즈를 생산하는 동양고무산업 내 공업용품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8년 동양화공을 출범시켰다.

산업용 고무 제품으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시장개척, 기계설비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경제 발전에 수반되는 자동차 산업에 주목했고 그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고무를 소재로 한 자동차 부품사업임을 확인했다. 자동차 부품 시장이 완성차 업체와 분업적 생산체제를 형성하면서 소재를 비롯해 기계, 전기·전자 등의 부품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점유율 1위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신발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화승의 고무처럼 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화승은 기술경쟁의 첨예화와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신소재 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자체 기술과 외국 기술의 도입으로 자동차용 호스(Hose)-브레이크호스, 파워스티어링 호스, 에어컨호스-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국내 생산이 전무했던 자동차용 웨더스트립(Weather Strip) 기술을 도입해 제조, 생산하며 효자품목으로 만들었다.

근대화의 첨병 역할을 했던 당시의 자동차 산업,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부품 사업에 전력하기 위해 동양화공으로 시작한 기업은 1988년 화승화학으로 사명을 바꾸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로 수출 성장을 이룩한 가운데, 1998년에는 (주)화승 R&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21세기, 화승은 브랜드 신발 메이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고무 제품 종합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용 고무 부품, 현재 화승은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이고 스텔란티스, GM, BMW, 폭스바겐, 벤츠 등 해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에 이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화승이 장착해온 ‘자동차 부품’이라는 성장 엔진이 친환경 미래에도 고무적으로 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자동차 속 화승 제품군

화승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 주요 고무 부품으로는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먼지 등의 차내 유입을 막아주는 씰링(Sealing) 제품인 웨더스트립(Weather Strip)과 각종 오일류 및 유압원을 자동차 주요 장치에 전달하는 Fluid 제품인 호스(Hose)로 구성되어 있다.

SEALING LINE
Weather Strip Products

1 Glass Run(Run Channel)

도어 프레임부의 Glass 가장자리에 장착, Glass의 승하강을 유도하며 외부로부터의 누수, 소음, 풍절음(Wind noise) 방지

2 Door Seal

도어 외관 전체에 장착되어 도어 개폐시의 완충역할 및 실내에 물, 먼지 등의 유입 방지는 물론 과도한 풍절음 차단

3 Body Seal

차량 바디에 장착되는 씰로 도어 개폐시 도어 가장자리와 맞닿는 곳에 장착되어 Door Seal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도어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차량에서는 Glass Run의 기능까지 수행

4 Fixed Weather Strip

도어에서 승강이 되지 않는(고정된) Glass의 가장자리에 장착되어 물, 먼지 등의 유입 방지 및 외관미 향상 도모

5 Encasulation

Fixed Weather Strip과 Glass를 일체화하여 성형하는 기법 및 제품으로 기존의 Glass와 씰을 조립하여 장착하는 방식보다 물이나 소음차단 효과가 월등하고 외관미도 향상

6 Glass Molding

차량 전면유리(or 후면유리) 테두리에 장착하여 차체 바디 사이에 씰링, Glass의 고정과 주행 중 진동흡수 및 물, 먼지 등의 유입을 막고 풍절음 방지

7 Door Belt Inner/Outer

도어 중앙부 Inner 판넬(or Outer 판넬)에 장착, Glass의 승강시 먼지나 물기 제거 및 누수 유입 방지

8 Hood(Seal) Weather Strip

차량 보닛 부위의 바디 가장자리에 장착되어 엔진 및 보닛 소음 차단

9 Sun Roof Weather Strip

일부 섀루프 차량에 장착, 섀루프 Glass의 고정과 주행 중 진동흡수 및 물, 먼지 등의 유입을 막고 풍절음 방지

10 Trunk Lid

차량 뒤쪽 트렁크 바디 가장자리에 장착, 누수 차단 및 트렁크 개폐시 완충 역할

FLUID LINE
Hose Products

1 Air Conditioning Hose

차량의 내부 온도를 관리하는 HVAC(Heat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System에 있어서 냉방에 필요한 냉매의 이동 보관을 담당하는 배관 부품으로서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호스

2 Hydraulic Brake Hose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한 고압의 유압을 바퀴(캘리퍼)까지 전달하여 제동시키는 고압 호스

3 Radiator Hose

엔진 내부 순환시 가열된 부동액을 라디에이터로 이송하여 냉각하고 그 부동액을 다시-엔진 냉각을 위해-엔진으로 이송하는 호스

4 Brake Vacuum Hose

브레이크 진공 부스터에서 엔진에 연결되어 차체 제동시 바퀴의 캘리퍼에 충분한 제동력이 형성되도록 부스터 내부에 진공을 유지시키는 호스

5 Heater Hose

엔진 내부 순환시 가열된 물을 히터로 이송하여 실내온도를 높이고 그 물을 다시 엔진으로 이송하는 호스

6 Fuel Filler H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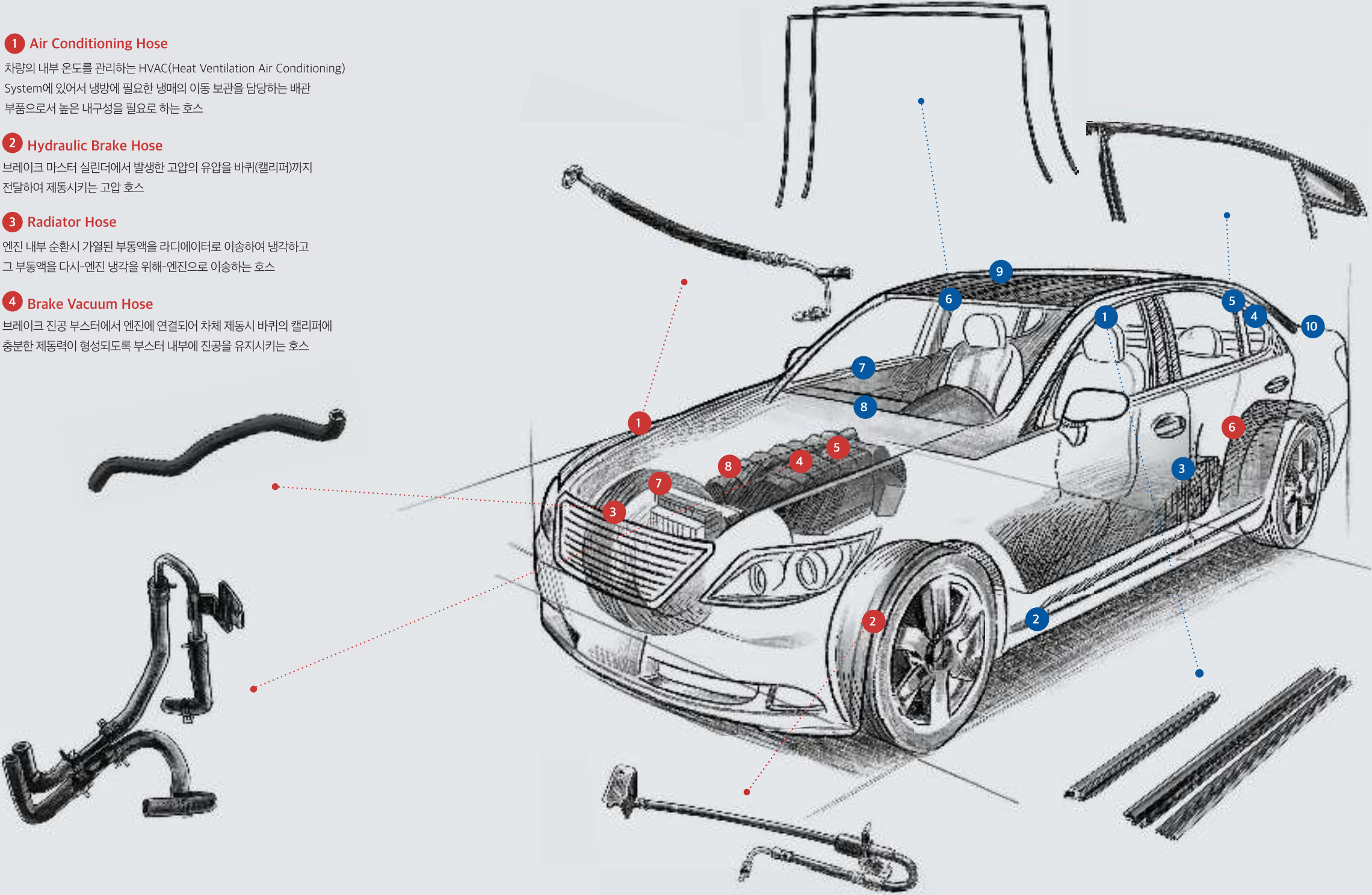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가솔린, 디젤유를 주유하는 주유구와 연료탱크를 연결, 관로 역할을 하는 호스

7 Fuel Hose

차량 하부의 Fuel Feed, Return 및 증기선에 연결되어 연료탱크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 및 리턴시키는 호스

8 Intercooler Hose

터보차저와 인터쿨러, 엔진 흡기관으로 연결되는 배관으로 진동 및 소음을 감쇄시키고 고온 및 내유 특성을 지닌 저압 호스



화승R&A 이정두 대표를 통해 자동차 부품사업의 이야기 퍼즐을 맞추다

화승R&A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 도전하고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화승인의 패기와 집념이 있어서 가능했다. 척박한 시대, 부족한 기술로 분투해온 이정두 대표의 이야기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해오며 친환경 자동차 시대까지 대비하는, 그의 기억과 기록의 퍼즐들을 맞춰보았다.

1982

**화승R&A(당시 동양화공)
입사 후 웨더스트립 개발에 투입,
일본 도카이공업에 연수**

“당시 일본에서 기술 습득을 위해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라는 뜻의 일본어 ‘구다사이(주세요)’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1983

**1년여 고난 끝에 웨더스트립 생산에 성공,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 현대에 납품 시작**



“현대자동차의 포니와 엑셀에 웨더스트립인 도어 오프닝을 첫 조립하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화승에 첫 자동차 부품사업의 날개를 달았던 그 순간을!”

©Auto Tribune

1985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63빌딩에
화승 제품 사용**

“자동차용과 함께 건설용 고무 부품을 만들고 있는 화승의 납품 스토리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의도 63빌딩의 창틀 고무 패키징은 화승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전량 납품했었죠.”



1994



**웨더스트립 생산 11년만에
화승R&A 흑자 전환**

“초창기 테스트에 테스트를 거치며 월 7,000만 원 정도의 교육비는 클레임 비용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렵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10년여 만에 ‘흑자 전환’이란 쾌거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소회가 참 남다르더군요.”

2019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업체에도 부품 공급 시작**



“현대·기아차, 쌍용차, GM,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국내외 우수 완성차 업체에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온 화승은 향후 뚜렷한 성장이 기대되는 베트남 빈펄에도 부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아세안 국가로의 시장 확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0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맞아
화승R&A 3대 핵심과제 제시**

“화승R&A는 ‘부품모듈화, 경량화 부품 개발, 글로벌 마케팅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를 통해 전기차, 수소차 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대비할 것입니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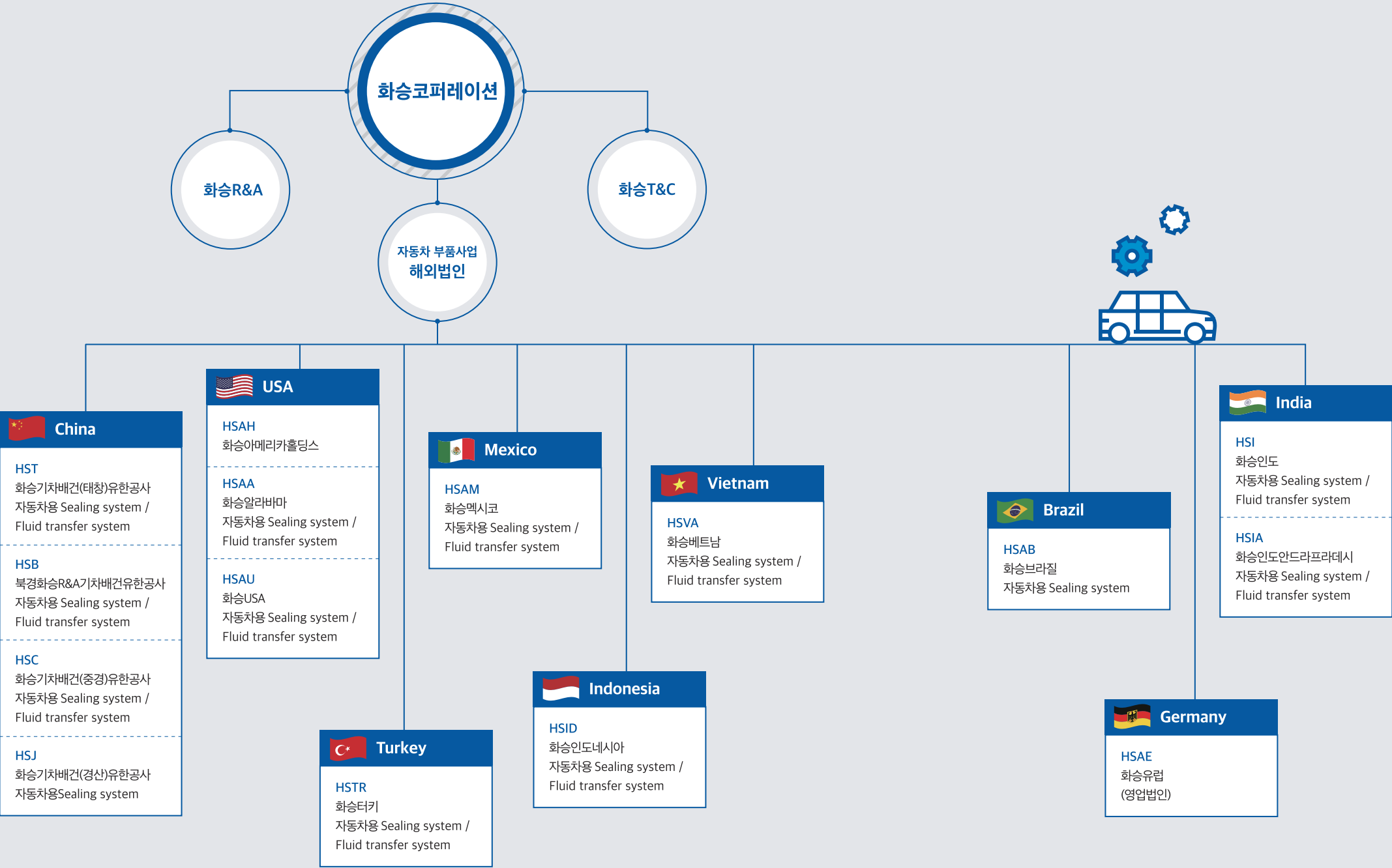
**이정두 대표의 생각,
나에게 화승은...**

“화승은 나의 친구이자 애인, 놀이터이며 삶의 전부입니다. 내년이면 화승과 함께한 지 40년이 되지만 여전히 설레고 벅잡니다. 부품 없이 완성차 없듯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는 부품 시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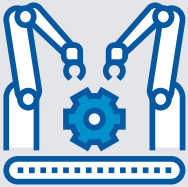


세상 모든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부품이다

-화승의 자동차 부품사업 현황 그리고 미래



화승은 고무 소재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고무신발에서 산업용 고무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왔다. 문명의 이기이자 꽃이기도 한 자동차, 그중 부품산업 분야에서 화승R&A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지속가능할 화승의 자동차 부품사업 현황과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기능을 가치로 업그레이드한
자동차 부품사업**

‘기계 따위의 어떤 부문에 쓰이는 물품’을 사전적으로 ‘부품’이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 ‘부속품’이라 하며 보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고 꿰어야 보배이듯 인류가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낸 자동차는 부품 하나하나를 꿰어야만 완성차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자동차 속 부품들은 각각의 특징점을 가진, 부속적 의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 기능품인 것이다. 화승이 국내 점유율 1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부품을 가치 있는 기능 제품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바로 자동차용, 국내 최대 규모의 고무종합브랜드 업체인 화승R&A가 있어 가능했다. 1978년 동양화공으로 시작한 화승R&A는 1991년 기술연구소를 설립, 본격적으로 자동차 및 산업용 고무 제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에 나섰다. 우수한 인력과 최신 설비들을 보유, 고무 및 관련 제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뿐만 아니라 선진업체와의 기술 제휴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경남 양산에 본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 9개국(중국, 미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에 총 15개의 관계사를 두고 있다. 화승R&A의 비약적인 성장에는 화승T&C도 한몫 거들고 있다. 화승T&C는 경남 양산에 본사와 1공장이 있으며 2017년에는 천안 공장을 준공하여 2공장인 아산 공장을 이전하였다. 움직이는 자동차에 꼭 필요한 방진, 내진, 충격 흡수 및 완충작용 등 고무의 재료적 특성을 담은 Sealing 제품(Weather Strip, 누수방지용 고무), 각종 오일류·유압원을 자동차 주요 장치에 전달하는 Fluid 제품(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과 에어 콤프레서에서 토출된 냉매를 수용하는 고·저압 Hose제품(자동차 에어컨용 호스 어셈블리)을 제조하는 등 화승R&A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자동차 부품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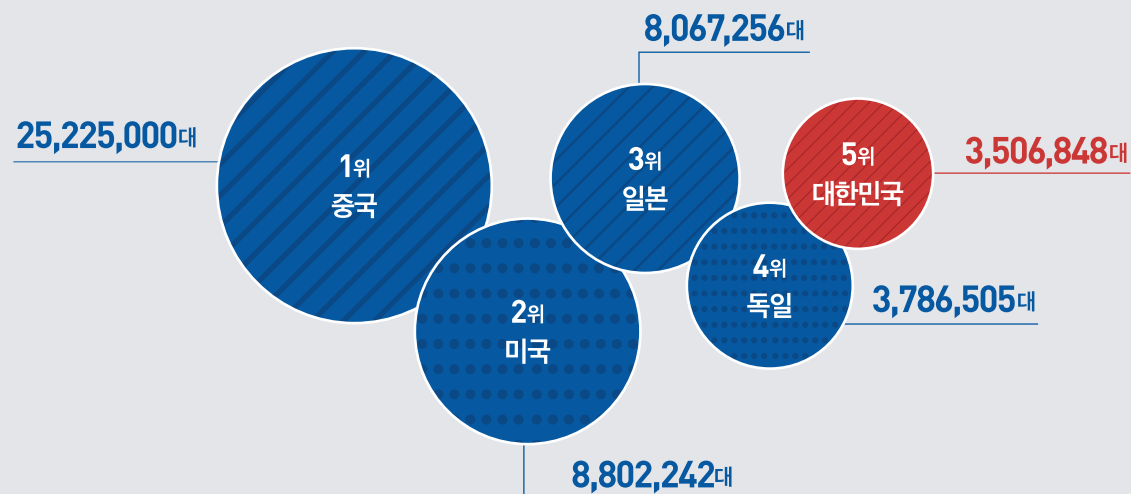
친환경을 위한 전기차, 수소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시장이 급변해가는 상황에서 부품 업체들 또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할 때, 화승은 성장을 위한 큰 그림으로 글로벌 경영 체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해 그룹 내 부품사업 분야를 개편하였다. 그동안 화승R&A의 사업부문 중 신규사업 투자와 비자동차 사업 등은 ‘화승코퍼레이션’이란 사명으로 존속되고, 같은 명칭의 화승R&A는 신설법인으로서 자동차 부품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설된 화승R&A는 독자적인 자동차 부품사업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부품시장 확대를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생산 효율화와 산업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부품모듈화’와 전기차 경량화에 기여하는 ‘경량화 부품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량화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품 3만여 개에 달했던 기존 상용차에 비해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에는 1만 8,900여 개로 부품 수가 대폭 줄어드는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조시스템, 경량화 소재, 웨더스트립 부품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차 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 또한 힘을 신는 요인이자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앞선 포지셔닝도 힘이 되는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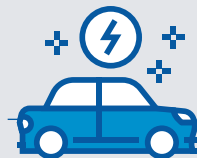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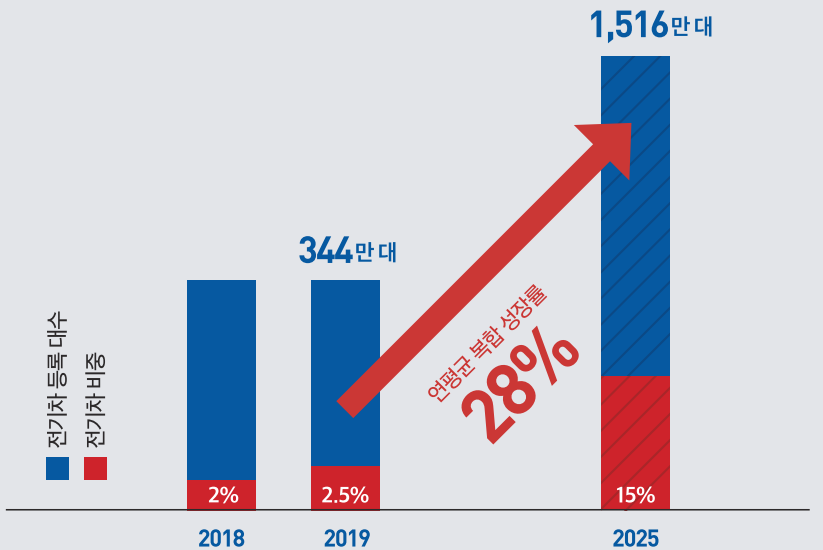
전 세계 자동차 생산 규모(2020년 기준)

자료출처: KAMA(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 세계 친환경 자동차 수요 추세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포함
자료출처: 미국 경제전망 전문기관 <IHS글로벌인사이트>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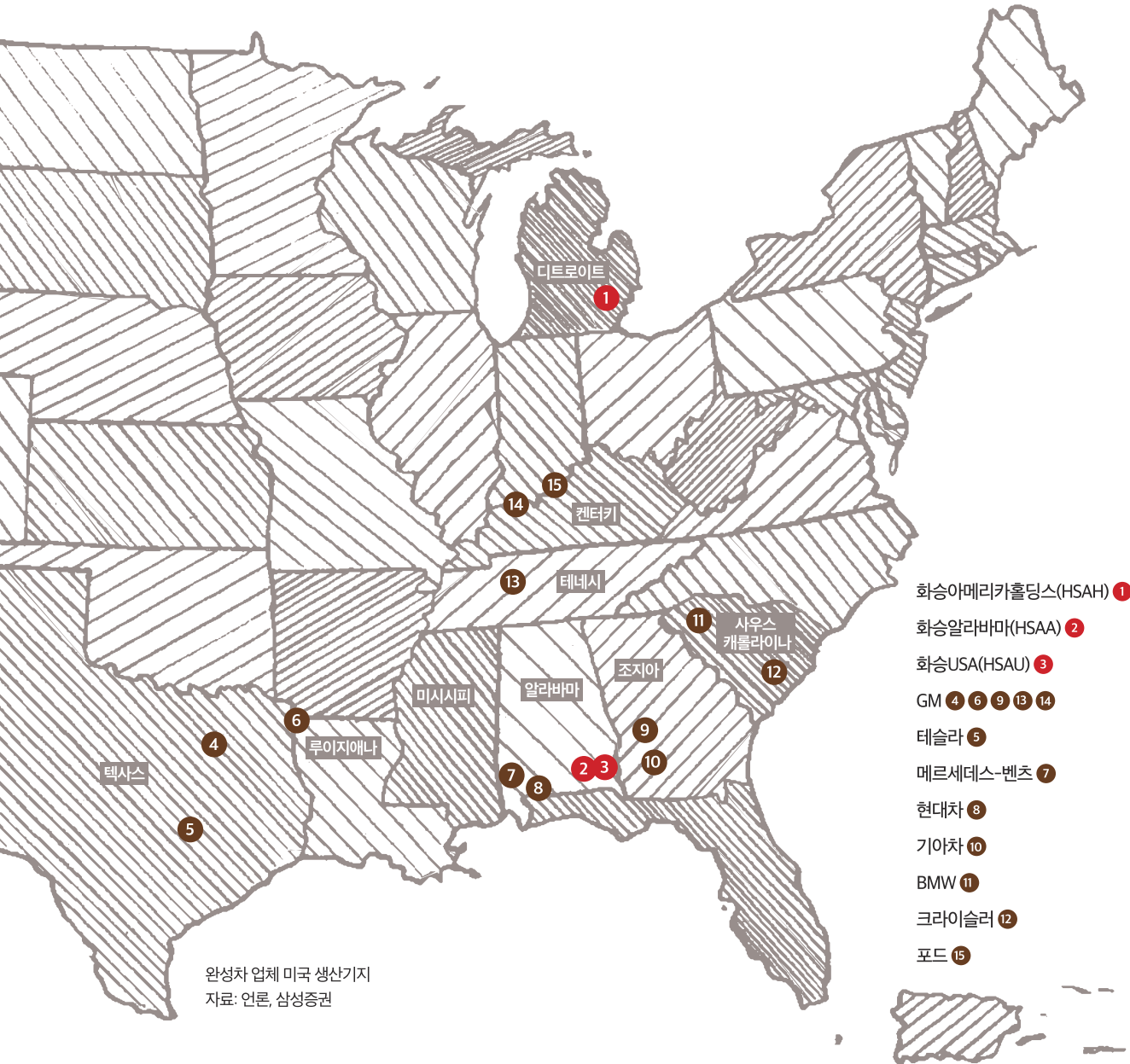
화승R&A는 사업의 출발이자 목적이 ‘고객만족’에 있다는 목표 아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최신 생산방식을 채택한 첨단 자동화 설비에 과감히 투자, 세계 일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다. 차곡차곡 쌓은 반세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승R&A는 화승T&C와 함께 자동차 도어 및 트렁크 실링용 제품과 에어컨, 파워스티어링 외 각종 호스 그리고 호스 파이프 어셈블리 제품 등을 국내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며, 오직 품질과 신뢰로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자동차 시장 환경에 기인해 발전할 수 있고 성장 또한 견인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 및 생산기지 이동에 따라 화승도 동반 진출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용 고무 부품은 사용 환경이 매우 엄격하고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화승이 자동차 웨더스트립과 호스 부품 분야 국내 점유율 1위를 지키며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지속하고 가속화시키는 이유다. 그래야 목표로 한 ‘글로벌 Big3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 변화무쌍한 자동차 시장 환경이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혁신으로 대응하는 화승R&A가 있는 한 그 목표는 그리 요원하지 않을 것이다. 🚗



화승 자동차사업의 미래, 美 85번 고속도로에 달렸다

1,740억 달러(한화 200조 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투자한다는 금액이다. 트럼프 정부 시기 연비규제 완화로 전기차 시장 개화가 지연됐던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한국 자동차 산업과 부품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화승코퍼레이션의 자동차 부품사업 자회사인 국내 자동차 웨더스트립과 호스 부품 기업 1위 화승R&A에는 또 어떤 청사진이 필요할까.



미래 자동차 산업의 청신호, 美 자동차 벨트 건설

자동차 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을 대표한다. 자동차에는 단순 부품에서 고도의 정밀가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재, 공정, 규격, 정밀도 등 공학적 기초도 다양하다. 그리고 분업구조와 전문화를 필요로 한다. 부품 및 소재 산업 등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

한국 1위 완성차 업체 현대차그룹은 작년 7월 청와대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직접 참여해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판매,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기차 세계 1위 업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대차그룹의 2021년 1분기 전기차 판매는 5만 6,761 대다. 시장점유율은 8위(4.8%)로 작년(5위)에 비해 3계단이나 미끄러졌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 선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7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공장 건설이 최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2022년에는 기존 알라바마/조지아 공장 생산라인에 아이오닉5, EV6, 니로 등의 투입이 예상된다. 계획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해외 생산대수는 2022년 이후 미국>인도>중국 순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공장 증설은 미국에 진출하는 부품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남부지역에는 ‘자동차 벨트’가 건설되고 있다. 텍사스부터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어진다. 현대차그룹 외 일본, 독일 자동차 업체도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의 GM, 포드, 테슬라의 신설 공장도 자동차 벨트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85번 고속도로를 따라 알라바마주와 조지아주의 경계 지역에는 현대차/기아와 주요 부품사들이 모여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화승R&A 호스 생산 자동화 라인



화승소재 로봇 공정



친환경 자동차 시대, 새로운 기회 될 고무부품산업

자동차 고무부품산업은 폭넓은 산업 연관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간재 산업이다. 소재 산업을 후방으로 하고 완성차 산업을 전방 사업으로 한다. 자동차의 생산과 보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수요자인 완성차 업체와 생산, 판매, 가격결정, 기술지원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동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내연기관 차량 부품의 대부분은 엔진과 변속기 등에 쓰인다. 전기차 시대 도래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역시 기본적으로 자동차다. 중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탑재되는 부품들이 존재한다.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인 엔진, 변속기 클러치 등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겠지만 배터리, 공조시스템, 모터 등은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성장 중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시장 성장에 적응해 조기에 시장을 선점하는 소재 및 부품업체들은 기존 전통 자동차 시장 대비 더 많은 부품 개수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시장에서 수익성 및 성장성을 갖출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민첩하게 기술개발에 공을 들이며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온 부품업체들은 그린뉴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됐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자동차 부품 자회사인 화승R&A의 미래도 전기차에 달렸다. 화승R&A는 고무 소재를 이용한 자동차용 고압호스, 저압호스, 웨더스트립 제품 분야 국내 1위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미국 자동차 부품 법인인 미국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시에 있는 HSAA(HWASEUNG AUTOMOTIVE ALABAMA LLC.)를 통해 첨단 생산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현지 시장에서 품질 우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 HSAU(HWASEUNG AUTOMOTIVE USA LLC.)는 미국 대표 자동차 호스 부품 전문생산기업으로 성장했다. 스텔란티스사(社)가 선정한 1차 밴드사이기도 하다.



화승R&A, 시장 선점과 고무부품 개발 위해 노력

현재 화승R&A는 신소재를 적용한 냉각 호스를 개발해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코나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만드는 부품 ‘스택’ 내부에 들어가는 얇은 고무박막도 연구, 개발했다. 현대 수소차 모델 넥쏘용이다. 수소차 엔진에 공기를 불어 넣으며 습도를 높이는 습윤기 호스도 제조 중이다. 모두 기존 내연기관차에는 없는 부품들이다.

화승R&A는 2021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181억 원, 영업이익 81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따른 완성차 업체의 가동일수 증가와 주요 선진국 등의 자동차 구매 수요증가로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이전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시장 선점과 생존을 위해서는 관련 부품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남부 ‘자동차 벨트’에 위치한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은 필수다. 이를 위해 화승의 자동차 부품사업은 지속적인 친환경·선진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 시대, 화승R&A의 미래는 미국 85번 고속도로에 달렸다. 🚗



긴가민가했던 친환경 전기차 시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은?

불과 5년여 전만 하더라도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주행거리가 짧은 배터리 성능을 비롯해 충전소 설치 등 사회적 인프라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제조사나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전기차 시대'라는 것에 대해 '긴가민가'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요즘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수시로 전기차를 보는 건 흔한 일이 됐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4만 8000대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까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적어도 20만 대는 훌쩍 넘길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사실상 전기차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표현된다.

‘없어서 못 판다’는 대한민국 전기차

전기차는 단순히 화석 대신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데에만 그치는 건 아니다.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이다. 여기에 다양한 신기술이 더해져 사람과 자동차가 서로 교류하는 커넥티드카를 비롯해 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내연기관차와는 사뭇 다르다. 전기차는 사실상 현실적인 자동차이면서도 미래 모빌리티에 속한다는 걸 동시에 함축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대자동차그룹 최초로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아이오닉5’와 ‘EV6’ 전기차를 내놨다.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는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 차체 바닥은 편평하게 만들고 엔진과 변속기, 연료탱크 등이 차지하던 공간을 없애 실내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모듈화된 부품을 적용하는 데다,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500km 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시스템을 지원해 초고속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하다. 약 5분 충전만으로도 100km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정도다.

아이오닉5는 사전예약만 3만 5000대에 달했고, EV6는 단 하루만에 2만 1000여대 계약을 넘겼다. 현대차와 기아의 당초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는 후문이다. 아이오닉5와 EV6는 지금 계약한다 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소비자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친환경 이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은 친환경차로 채우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주목을 받았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는 디젤차와 가솔린차(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회장 겸 CEO는 배출 제로, 충돌 제로, 혼잡 제로 등 비전을 제시하고 오는 2025년까지 350억 달러(한화 약 38조 5000억 원)를 투입해 전기차의 비중을 전체 판매의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까지 신차를 전기차로 모두 바꾸고, BMW를 비롯해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 등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전기차 비중을 늘리면서도,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지를 놓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진 않은 상태다. 다만, 대표적인 반친환경적인 차량으로 꼽히는 디젤차만큼은 더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쯤되면, 디젤차와 가솔린차 등 내연기관차의 퇴출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산술적으로는 향후 10여 년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ELECTRIC
VEHICLE



친환경 자동차에서 미래의 모빌리티까지

디젤차량은 인체에 치명적인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다 하늘을 뿌옇게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시급히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다. 중국과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디젤승용차의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일본도 사실상 디젤승용차는 퇴출된 상태고, 유럽 역시 디젤차 시대가 저물고 있다. 자동차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서만 디젤차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제조사들의 개발 비용을 한국 소비자들이 충당해주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 구매자 중 40세 이상의 장년층은 전체 구매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20~30대 젊은층 소비자는 18%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MZ세대가 여전히 디젤차 등 내연기관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젊은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도 시급하다.

이처럼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의 미래,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도 적잖다. AI를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차가 교류하는 커넥티드카를 비롯해 스스로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차 구현을 위한 기술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여기에 발맞춰 미래의 자동차는 커넥티드나 자율주행 등으로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나 도어, 시트 등의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품의 경량화를 위한 비금속재, 방풍이나 풍절음, 케이블, 방진 부문에 걸쳐 필수적인 친환경 고무 제품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상상 속의 미래 모빌리티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10년보다 오히려 최근 1년의 변화가 더 크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인프라를, 제조사는 경쟁력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은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



고무를 더 고무답게 웨더스트립 코팅제, COATWELL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올려 예쁘게 구워보려 했더니 이런, 달걀이 팬에 눌러붙었다. 그래도 달걀은 아무것도 아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 불고기라도 구웠다고 생각해보라. 설거지하는 동안 얼마나 욕이 나올지. 팬 위에 둘러진 얇은 막 하나가 우리의 주방을 조금 더 즐겁고 편하게 만들었다. 이는 자동차 부품, 웨더스트립에도 적용이 된다. 웨더스트립을 더 웨더스트립답게. 화승 웨더스트립의 숨은 주역, 코트웰(COATWELL)의 고무적인 스토리를 화승케미칼 화학영업팀 정재훈 팀장에게 들어봤다.



심플하지만 특별한 성능의 코팅제

웨더스트립은 자동차 차체, 도어, 창문, 트렁크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된다. 차량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비바람을 막아주고 소음을 줄여주는 등 운전자의 쾌적한 드라이빙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주 사용되는 곳에 장착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고무의 피로도 쉽게 누적될 수 있다. 빗물에 쉽게 노출되거나, 문을 여닫으면서 생기는 마모 등 시간이 지나면 고무가 경화되고 삭아서 본래의 기능을 잃을 수 있는데 여기서 웨더스트립 코팅제 코트웰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웨더스트립에 수성 또는 유성의 코팅제를 입혀 고무의 성능을 오랜 기간 유지시키는 것, 심플한 역할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양한 부가 기능이 숨겨져 있다. 기본적인 고무의 물성을 보호하면서 소음 감소, 슬립감 향상, 밋밋한 고무 질감 위에 매끈한 외관을 올리는 등의 감성적인 기능까지 더하고 있다.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면 폐차를 할 때까지 웨더스트립을 교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는 웨더스트립 고무의 성능을 최대로 연장시키는 코팅제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GM에서 생산하는 픽업트럭의 코팅제는 화승 제품만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마모 테스트의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은 화승의 코트웰이 유일무이하다. ”

COATWELL의 ‘유일무이’한 품질

웨더스트립 코팅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70년대 일제 차에서 시작된 웨더스트립 코팅 기술은 현재 국내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화승R&A도 오래전부터 우리 기술로 웨더스트립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코팅제가 국산화된 것은 90년대 후반. 현대자동차 액센트의 웨더스트립을 개발할 당시 화승R&A 내 코팅제 개발부서에서 국산화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화승케미칼 코트웰로 성장했다.

현재 웨더스트립 코팅제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성 코팅제와 최신 기술이 도입된 친환경 수성 코팅제 2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내 영업 중인 웨더스트립 코팅제 회사 중 상용화된 수성 코팅제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화승 케미칼밖에 없을 정도로 기술력과 품질을 모두 잡은, 국내 넘사벽 1위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한다.

웨더스트립 코팅제는 웨더스트립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실질적인 납품처는 화승R&A와 같은 웨더스트립 제조 업체이지만 코팅제의 사용 승인은 완성차 업체에서 하기 때문.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처음 진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른바 ‘듣보잡’ 화승이 코팅제를 들고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당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 GM은 코팅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정된 몇몇 업체와 함께 마모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화승의 끈질긴 노크에 참여를 허락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화승의 제품만이 유일하게 혹독한 마모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승인 담당자가 깜빡하고 테스트기를 켜둔 상태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지정해놓은 극악의 조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화승의 코팅제는 썩썩했다고 한다. 이후 GM에서 생산하는 픽업트럭의 코팅제는 화승 제품만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마모 테스트의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은 화승의 코트웰이 유일무이라고 한다.



화승케미칼 화학영업팀 정재훈 팀장

자동차 부품을 넘어 소비재로

코트웰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도전한 화승은 현재 세계 코팅제 시장에서 6위에 랭크되어 있다. ‘자동차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미국 시장을 비롯해 유럽 시장 쪽은 로컬 매니저를 고용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완성차 업체 및 웨더스트립 제조 업체로의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도 이미 진출했다. 자국을 우선시하는 로컬 시장 분위기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웨더스트립 코팅제 영업은 끈기가 없으면 못 하는 업무”라고 화학영업팀 정재훈 팀장은 말한다. 차량 개발단계부터 최종 납품까지 3~5년 가량 걸리는 프로젝트다 보니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객 중심의 영업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대세에 맞춰 연구소에서도 친환경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화승케미칼. 최근 기존 코팅제 기술을 응용해 자동차 광택 코팅제 제품 개발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B2B를 넘어 B2C 시장까지, 화승케미칼 코팅제가 산업재와 소비재를 넘나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지속가능할 미래를 준비하는 화승의 가을

화승소재, 지속적 R&D로 미래 먹거리 발굴

-화승코퍼레이션 자회사, 화승소재 통한 캐시카우 창출 노력



화승코퍼레이션의 핵심 소재를 연구·개발하는 자회사, 화승소재가 4가지 R&D로 미래 신사업을 발굴한다. 화승소재는 △자동차 신기술 △친환경 기술 △방산 및 해양 신제품 3가지 R&D에 에너지 분야인 ESS를 포함한 신규 아이템 및 기능재 중심의 특화 제품 개발에 나선다. 복합재와 합성재 부문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력을 앞세워 방산 및 친환경 등 기능재 분야에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화승그룹 소재사업을 담당하는 화승소재는 기존 자동차 분야의 전문화된 합성(Compounding)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승소재는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각종 아이템, 신소재로 주목받는 수지 탄성체나 실리콘계, EP 융합 소재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자동차 부문의 신규 사업 제품군도 확대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해상 및 항공 부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ESS 관련 친환경 부품과 조선 등 해양 부품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밸류체인으로 꼽히는 ‘STC(Source, Transfer, Charge)’ 각 단계에서 접목이 가능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화승소재는 미래 기술 과제로 기능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바이오 향균, Non 할로겐 등의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화승코퍼레이션 내에서 신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화승소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도 중반을 넘어서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은 실적으로 현재를 말하고, 연구개발로 미래를 준비한다. 화승 또한 급변하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연구·개발한 부품을 선보이고 또 다른 먹거리 개발에 나서는 등 분투하는 나날이었다.

어떤 노력이 결실을 맺고 어떤 이슈가 회자되고 있을까.

해외 PR

News Cli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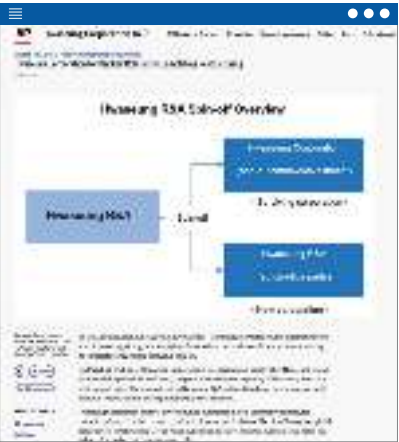
미국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중국



신아일보



텐센트



진르터우타오

지난 6월, 미국과 중국의 주요 언론사에 화승코퍼레이션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다. 자동차 부품 R&D로 미래 부품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기사로 미국의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을 비롯해 중국의 신아일보, 텐센트(Tencent), 진르터우타오(toutiao) 등에 게재되었다.

전기차 전환에 일감 대폭 늘어난 화승코퍼레이션 …“넥쏘에도 부품 공급”



경남 양산시 교동 유산공단에 있는 화승소재 공장. 거대한 배합기를 통과한 새까만 고무 덩어리가 복잡하게 이어진 처리 기계를 끊임없이 통과했다. 매캐한 고무 냄새가 나는 공장은 축구장 정도 크기였는데, 작업자 없이 기계만 돌아가고 있었다. 기계를 통과해 가공된 고무 제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적재하는 것 역시 로봇의 몫이었다.

화승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고무 제품의 절반은 바로 옆 화승알앤에이(화승R&A) 공장으로 옮겨진다. 화승알앤에이는 화승소재로부터 넘겨받은 고무 제품에 260~280도의 열을 가해 가공한 뒤 외부 소음, 빗물, 먼지의 차내 유입을 막아주는 실링 제품(웨더스트립)과 각종 오일류·유압원을 자동차 주요 장치에 전달하는 고무호스 제품을 생산한다.

호스 제품을 생산하는 화승알앤에이 각 생산라인에는 현대차·기아·폭스바겐·GM 등 완성차 업체명이 쓰인 팻말이 붙어있었다. 고무호스를 규격에 맞게 자르고 부품을 붙여 조인 뒤 검수하는 과정이 이뤄진다. 생산 물량에 따라 일부 라인은 전 공정이 자동화됐고, 일부에서는 작업자들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화승알앤에이의 최근 공장 가동률은 80~90% 수준이다.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화승알앤에이

는 오히려 일감이 크게 늘었다. 실링 제품은 전기·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차에도 동일하게 탑재되는 데다, 호스의 경우 냉각 시스템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복잡한 전기차의 특성상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또 화승알앤에이는 신소재 개발을 통해 수소차 모델 ‘넥쏘’에 장착되는 저이온용출 냉각호스를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다.

화승알앤에이는 최근 소재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나섰다. 자동차 부품사업은 분할 신설법인인 화승알앤에이가, 산업용 고무·투자 등 비자동차 부품사업은 존속법인 화승코퍼레이션이 담당하는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신설법인 화승알앤에이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사업을 강화하고, 화승코퍼레이션은 에너지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화승소재 대표이사 겸 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허성룡 대표는 “아직은 현대차·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글로벌 수주를 확대해 해외 업체에 대한 납품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 4개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의 경우 현대차·기아와 SGM(제너럴모터스의 중국 현지 합작법인), 폭스바겐 3곳의 매출 비중이 각각 30%이고, 장성기차·장안기차·리상 등 중국 현지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면서 다변화되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도 스텔란티스와 GM, 폭스바겐의 수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중견기업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것은 직접 소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성룡 대표는 “무거운 배터리가 탑재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가볍고 주행 소음이 적은 부품을 요구한다”며 “고무와 화학 소재를 직접 개발하는 화승소재 덕분에 전기차 전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6월 14일 조선비즈 기사(연선옥 기자)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화승, 전기차 올라탄 고무 소재 ‘新성장스토리’

재도약 날개 편 화승코퍼레이션
해외법인 28개·매출 1조 3300억
산업용 고무 제품 글로벌 ‘투톱’

현대차에 신소재 냉각호스 납품
ESS 부품 등 그린에너지 진출도

자회사 화승소재가 신사업 선봉
고무 소재 원천기술 1500개 넘어

◆전기차·수소차용 고무 부품 개발

화승코퍼레이션은 자동차 부품사업의 경우 현대자동차·기아에 생산량의 60%를 납품한다. 전선 피복 등 산업용 고무 제품은 6000억 원 규모인 한국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관계사 화승알앤에이(화승R&A)를 통해 신소재를 적용한 냉각호스를 개발, 현대차에 전기차 모델 코나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허성룡 대표는 “엔진이 없어지면서 연료계통 호스류 부품은 줄었지만 소음과 열에 민감한 전기차 특성상 소음방지용 부품과 배터리 냉각용 호스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차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게 허 대표의 설명이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만드는 부품 ‘스택’ 내부에 얇은 고무 박막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어서다. 고무 박막은 현대차의 수소차 모델 넥쏘용으로 개발되

고 있다. 그는 “친환경차 매출 비중이 이미 10% 가량 됐으며 앞으로 2000억 원 이상 매출이 친환경차에서 새로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화승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다. 1953년 설립된 동양고무가 기업의 모태다. ‘동자표’ 고무신을 만든 게 시초다. 1978년 동양화공(현 화승알앤에이)을 통해 고무를 사용한 자동차 호스 및 실링 제품(웨더스트립)을 생산하며 업종을 다각화했다. 1980년대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나이키 신발을 만들었다. 1996년에는 자회사 화승소재를 세우고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에 들어가는 고무 소재 개발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28개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조 3133억 원에 이른다. 허 대표는 “화승은 매출 규모로 산업용 고무 제품 시장에서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 부품도 개발

화승은 친환경에너지 분야도 공략하고 있다. 풍력·수상태양광 발전 부품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들어가는 특수 케이블 보호관 등이다. 허 대표는 “국내 전선회사 등과 협업하며 고전압 직류전기를 버틸 수 있는 특수 복합물을 개발했다”고 했다. 또 고무와 친환경



허성룡 화승코퍼레이션 대표는 “전기차로 가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화승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다”고 말한다.

원료를 섞은 소재를 개발해 신발, 가전제품, 바이오, 방위산업 등에 적용하는 등 신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이 신속하게 신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회사 화승소재에 있다. 허 대표는 “화승소재만이 보유하고 있는 원료 배합 레시피는 1500여 개에 달한다”며 “화승소재가 개발한 신규 소재는 특허도 내지 않는다”고 했다. 특허를 낼 경우 레시피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화승소재에서 개발한 신규 소재는 화승알앤에이 등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접목하고 있다. 허 대표는 “소재를 개발하는 업스트림부터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다운스트림까지 탄탄하게 수직계열화를 이뤘다”고 했다.

*2021년 8월 23일 한국경제 기사(김진원 기자)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SHUTTLE

세계는 지금 그린뉴딜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자동차부품 및 산업용 고무제품 기업인 화승코퍼레이션이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이유입니다.

패러다임 변화 속 기회를 찾는, 화승코퍼레이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성이 몽글몽글 카라반 가족여행

바야흐로 가을이다. 더위와 추위 대신 산뜻한 공기에 야외활동을 맘껏
 즐기고픈 계절이다. 그래서일까, 캠핑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캠핑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는 중이다. 거기다 조금 더 안전한
 캠핑을 추구하는 요즘, 독립된 공간에서 조금은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카라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쉽고 간편한 카라반 여행

본격적인 카라반 캠핑이 궁금해진다. 어느 캠핑이 그렇듯 최인규, 진민하 부부는 제일 먼저 장을 본다. 이후 자동차와 카라반을 연결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도착하면 본격적인 카라반 캠핑의 준비가 시작된다. 부부의 카라반은 전기로도 작동되어 리모컨으로 조정하거나 가볍게 끌어주기만 하면 쉽게 이동도 가능하다.

“사실 텐트 치고 정리하는 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만큼 체력소모도 크고요. 반면에 카라반은 정말 간편해요. 자동차와 연결된 고리를 빼고, 땅에 카라반을 고정할 네 개의 발판을 세우고, 수평만 맞추면 끝이니깐요.”

카라반이 고정되면 본격적인 세팅이 시작된다. 날씨가 더울 경우 카라반의 천막인 어닝을 펼치기도 한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카라반 내부는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갖춰 웬만한 숙박시설 부럽지 않기 때문이다. 야외에는 물건을 이동하는 웨건에 나무판자를 얹고 테이블보를 깔아 화려함을 더해준다. 미니스트브까지 올린다면 훌륭한 야외 조리대가 탄생한다. 간질간질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조명도 빠질 수 없다. 카라반 곳곳에 미니전구를 연결하여 어두운 밤하늘을 별처럼 밝히고, 부탄가스랜턴으로 환한 빛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카라반에 설치된 야외 조명까지 키면 캠핑다운 캠핑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부부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은 윈드스크린이다. 바람도 막아주고, 사생활이 보호될뿐더러, 빔프로젝터를 쏘아 영화까지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실제 필요한 물건들을 추가해가며 카라반 캠핑의 색다른 재미를 알아가는 중이다.



캠핑을 준비하는 동안 체력 보충용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빠르게 완성되는 팝콘은 부부의 딸, 해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요즘 캠핑은 고진감래?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캠핑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고진감래는 ‘고기도 먹고, 진실게 임도 하고, 감성도 충전하러 캠핑 갈래!’를 뜻한다. 그 시작에는 감성과 힐링의 끝판왕, 카라반이 있다. 화승R&A SL설계/개발팀 최인규 대리, 진민하 부부도 카라반으로 조금은 특별한 캠핑을 즐기고 있다. 텐트 하나 챙겨 7박 8일 동안 땅

끝마을 해남으로 떠날 만큼 캠핑러인 부부는 2년 전,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을 고민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카라반 살까?” 올해 초, 부부는 거의 동시에 카라반 구매를 제안했다고 한다. 비, 바람, 뜨거운 햇볕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카라반에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계절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았다.

“카라반을 구매한 이후로는 주말마다 시간 내려고 노력합니다.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한 만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요.”

부부는 요즘처럼 적당히 따가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만연한 가을 캠핑을 가장 좋아한다. 야외활동에도 자유로워 아이와 캠핑하기에 제격이다. 낙엽도 가을빛으로 물든 10월의 카라반, 부부가 올가을 캠핑을 더욱더 기대하는 이유다.





나만의 취향으로 꾸미는 카라반

최인규, 진민하 부부의 카라반에는 완전히 열리는 큰 창이 양옆에 각각 하나씩, 부엌의 맞은편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창문이 있다. 창문 너머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풍경은 카라반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경험이 된다. “자연 속 카라반은 웬만한 호텔이나 펜션보다 좋아요. 자연 한 가운데에 있다는 기분이 드니까요. 카라반을 구매한 이후로는 다른 숙박시설은 이용하지 않게 되네요.”

부부는 카라반을 구매하자마자 천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가족들이 태양 아래 캠핑을 즐기는 사이 카라반은 계속해서 스스로 충전중이다. 부부의 카라반 실내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이드 테

이블도 있다. “카라반이 작다 보니 중앙의 나무판은 침대와 식탁 겸용이었는데, 침대로 사용하고 양쪽에 세로로 긴 식탁을 직접 달았어요. 나무 판자 크기만 맞추고 철물점에서 직접 고리를 구매해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또한 주방에도 ‘ㄱ’자 모양의 판자를 추가해 여분의 공간을 만들었다.

혹자는 캠핑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집 나가면 사서 고생’이라 말한다. 하지만 카라반이라는 아늑한 집은 또 다른 휴식처가 되어준다. 최인규, 진민하 부부가 카라반에서 주말을 보내는 이유다. 무엇이든 어떤가. 취향에 따라 텐트, 차박, 캠핑카 등 각자의 스타일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보는 건 어떨까? 🚐



직접 만든 나무 판자는 쉽게 올렸다 내리며 가족만의 카라반을 더 실용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든다.

장소협찬

모든RV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710-1
(카라반 수입 판매 및 A/S)



감성이 피어오르는 캠핑 추천템 BEST 6



우드 스토브

외부의 공기가 스토브 안으로 유입되면서 강력한 화력을 만들고 우드 가스를 2중으로 연소시키는 화롯대는 연기를 최소화한다.



윈드스크린

사생활 보호는 물론 바람막이로도 사용된다. 또한 하얀 윈드스크린에 빔프로젝터를 쏘다면 이곳이 바로 우리만의 영화관!

나무 입간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가족만을 위한 문패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인디언행어

간편하게 조립해 만드는 우드행어. 컵이나 조리도구 등을 손쉽게 걸어두고, 하단 공간도 활용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다.



법랑 냄비

챙길 것도 많은데 무거운 건 딱 질색이라면? 법랑 냄비를 추천한다. 가벼우면서도 열전도율이 높아 따뜻한 커피 한 잔 금방 만들 수 있다.

가랜드



넓은 공간을 꽉 채워주는 가랜드야말로 캠핑의 필수아이템이다. 최근 가랜드들은 가족, 방수천, 종이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다.

‘MMCA 현대차 시리즈 2021’ 문경원·전준호 작가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

2012년, 카셀 도큐멘타에서 첫선을 보인 <미지에서 온 소식>은 영상, 설치, 아카이브, 출판 등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번 전시는 남한 유일의 비무장지대인 DMZ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배경으로 약 15분의 영상과 대형 회화, 설치, 아카이브, 사진 등이 공개된다.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 2021, 2채널 HD 영상 설치, 컬러, 사운드, 14분 35초. 작가 소장. 사진: CJY ART STUDIO.

문경원 작가

“두 영상은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시공간이 다른 두 사람의 고립된 삶이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 작가

“자유의 마을은 오래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같은 상황이 삶에 녹아있었습니다. 자유의 마을을 다루며 지금 달라진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적 전통문화를 세계적 언어로 표현하다

양태오 태오양스튜디오 대표



내로라하는 해외 브랜드와 협업하며 한국을 알리는 이가 있다. 그리고 그는 태오양스튜디오 대표, 디자이너, 컬렉터 등으로 불린다. 바로 얼마 전 가구 브랜드까지 런칭한 양태오 대표다. 한계 없이 가치를 뽐내거지만 한결 같이 그의 뿌리는 ‘한국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지난 역사를 바라보는 그만의 감각은 전통과 현대, 그 경계를 새롭게 만든다.

우리의 뿌리처럼 남아있는 한옥에서의 영감

사람의 발길 사이사이 한옥이 닿는 북촌. 그 골목에 위치한 태오양스튜디오는 청송재와 능소현이라 불리는 두 채의 한옥을 품고 있다. 그곳에서 만난 태오양스튜디오의 양태오 대표는 한국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20대를 보냈다. 그는 시카고미술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네덜란드의 디자인 거장인 마르셀 반더스의 회사에서 일하며 오랜 외국 생활을 경험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만 멀었을 뿐, 한국이 그리울 때면 시카고미술관의 아시아관을 찾던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태오양스튜디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운명적으로 만난 청송재와 능소현이 그에게 색다른 화두를 던져주었다. “2013년에 이 한옥을 만났어요. 그때 한옥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반했고, 디



자이너로서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자신만의 색채로 풀어가기 시작한 양태오 대표. 한국의 전통 유산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변하는 것에 아쉬움이 컸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선 디자이너로서의 사명감이 피어올랐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전통 유산은 공부할수록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고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송재, 능소현은 저의 일터이자 안식처로 각별한 영감을 줍니다.”

한옥은 성공한 아들이 어머니께 지어주는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 전통 가옥의 안채는 가장 안쪽,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는 항상 집 전체를 내려다보고 보살피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공간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최적화된 주거 형태입니다. 한옥에서 보살핌과 치유의 DNA를 느끼는데, 아주 먼 옛날 선조 때부터 살았던 기억이 DNA에 남아 한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매 순간 틈마루로 스며드는 햇빛, 노을이 저무는 그림자, 계절 따라 피고 지는 식물이 주는 즐거움, 양태오 대표는 한옥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몸소 배우는 중이다.





원형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양태오 대표, 그는 가야와 백제시대의 토기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오래된 가치,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

양태오 대표의 한옥을 가까이 살펴보면 집 안팎 소품에도 한국의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컬렉터로도 알려진 그는 조선 후기 초상화의 형형한 눈빛에 압도되고, 비워진 단색화에서 변치 않는 디자인을 찾고, 투박한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토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렇게 하나, 둘 모은 것들은 영감이 되어 그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우리의 것이 과거라고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움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해 재탄생할 수도 있고요.” 옛것에서 영감을 얻는 그는 많은 것을 바꾸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 노력한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에서 얻은 영감을 갖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디자이너, 많은 예술가들의 시도를 동시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해요.”

오래되고 시간이 깃든 것에 매혹된다는 양태오 대표, 2019년 화승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낸다. 감동과 충격,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애정 어린 시선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인 이유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빠른 변화와 발전을 경험했죠. 그러한 변화와 발전에 휩쓸리면 오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화승원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화승원이라는 시간이 담긴 공간에서 정성을 느끼고, 역사를 찾을 수 있었다. 아직도 양태오 대표는 화승원 대나무 숲을 거닐던 추억이 선명하다고 한다.



과거의 아름다운 철학을 현대로 불러오는 디자인

양태오 대표는 그의 집을 ‘살아온 캔버스’라 표현한다. 그는 좋은 공간에 의미 있는 작품 하나, 가구 하나를 들인 후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위로받고 있다. 이처럼 공간의 위로를 전하고자 시작한 태오양스튜디오. 어느덧 10년 넘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는 작업과 호흡했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양 대표는 공공 프로젝트도 지속하고 있다. 작년 12월 경주국립박물관 리노베이션으로 박물관의 경계를 허물었고, 올 11월 말에는 새로운 국립한국박물관도 선보인다. 모든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누구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대표는 공간에 의미를 담고, 보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고민한다.

그 고민의 결과로 얼마 전, 경기도 동탄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 내 ‘엘리먼트 by 엔젤리너스(이하 엘리먼트)’를 소개했다. 엘리먼트는 카페 한가운데 좌석 대신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을 만들고, 식재료의 일부는 동탄 농가들과 협약을 맺었다. 일회용기 대신 비건 도자기를 사용한다. 이 또한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고민한 결과다. “예쁜 공간은 많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무엇을 전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알지 못했던 가치를 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저 시각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않는다. 의미를 천천히 곱씹어보다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곳, 양태오 대표가 만들고 싶은 공간이다.



‘망묘당’이라 불리는 서재는 그가 아끼는 물건과 책으로 채웠다.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는 곳이며, 새로 구입한 소품들은 잠시 이곳에서 머물 자리를 고민하기도 한다.



지하실을 갖춘 능소현은 보통의 한옥과는 다른 구조를 지녔다. 미디어룸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얼마 전 리모델링을 마쳤다. 양 대표가 조선시대 후기 미학인 무미에서 영감을 받아 런칭한 ‘이스턴 에디션’의 테이블도 눈길을 끈다.

예술하는 동시대적 디자이너 양태오

월페이퍼, 모노클, 파이돈 프레스…. 태오양스튜디오를 소개한 해외 매체다. 특히 태오양스튜디오는 올해 파이돈 프레스의 도서 『바이 디자인(BY DESIGN)』에서 동시대적 디자이너·예술가 100인에 선정되었다.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중 한국인 최초라는 기록이 이를 더욱 값지게 만든다.

그는 선정 이유에 더 감동 받았다는 후문을 전했다. 바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태오양스튜디오를 지지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선정되고서 목적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나라마다 떠오르는 전통적인 스타일이 있듯 앞으로 태오양스튜디오의 작업 또한 하나의 비주얼 언어로서 남길 바랍니다.”

프로젝트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는 가끔 조바심을 느끼곤 한다. 몸과 마음 모두 고된 창작활동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휩싸일 때도, 예쁘고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에 흔들릴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책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공부한다. 태오양스튜디오의 작업이 하나의 시도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양태오 대표, 앞으로가 쉽지 않을 것도 알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제법 덩뎡한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묻어난다. 그 떨림은 목직한 진동이 되어 100년, 200년 뒤 새로운 궤적으로 남지 않을까. 🚗

청자에 美친 행복한 컬렉터를 만나다

천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품은 청자(靑磁)에 홀릭되어 '美쳤다'는
요즘 표현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 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이자 최근 건강 약제까지 출시하면서
더욱 바빠진 주재윤 (주)셀라돈 대표다. 본업과 취미를 넘어 가치 있는 우리 고유의 청자를 수집하기까지
그의 美친 행보, 그리고 그가 꿈꾸는 청자빛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주)셀라돈 주재윤 대표

천년의 시간을 품은 청자를 사랑한 한약사

‘한 우물을 파야 잘 산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다섯 가지 직업 을 가지고 있는 주재운 대표는, 강원도 강릉에서 소나무한약 국을 운영하면서 건강 약제를 만드는 (주)셀라돈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마이셀라돈’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청자를 모으는 컬렉터로서 2년 가까이 청자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이기도 하다. 도대체 어 떤 계기가-다양한 명함을 가지게 하면서까지-그를 청자의 세 계로 이끌었을까.

“환자분 고쳐드리고 목이 깨진 청자를 받았던 게 시작이었어 요. 고려청자만의 독특한 빛깔과 상감기법에 매료되었죠. 거 기다 긴 시간을 순례해 내 손에 닿기까지의 인연이 느껴졌어 요. 청자가 영어로 ‘셀라돈(Celadon)’이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죠. 청자는 보통 옛날 무덤가나 궁궐터, 집터, 절터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는데요. 파손된 것들이 많지만 깨지고 흠집이 있어도 오묘하고 경이롭습니다.”



그렇게 청자와 함께한 지 10여 년, 잠자는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나라 청자 가마터를 찾아다니고 도록을 통째로 외 우고 깨진 조각 하나도 도자기 같아, 갈아서 마셔보기까지 했 단다.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제법 먼 거리를 강의하러 다녔 던 것도 대학 근처에 가마터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니, 가히 ‘청자 노예’라는 별명에 수긍이 가고 “약 팔아서 청자 산다”는 지인들의 놀림도 이해가 간다.

청자 컬렉터가 되기 이전부터 고미술이나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는 주재운 대표,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하며 고고학자 를 꿈꿨고 장성해서는 한약학을 전공해 한약사이자 연구가, 그리고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옛것, 우리 전통의 것에 대 한 관심과 사랑이 청자에게로 이어지면서 수집가로서의 책임 감도 생겼다고 한다. 2019년 (주)셀라돈을 설립한 것도, 유튜버 로 나선 것도 그에 따른 이유다.



청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담으려는 노력

“어느 순간, 누군가는 기록이라는 것으로 남겨야겠 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땅속에서 나와 출처 불명의 것들이 많지만 유물 하나하나에도 이야기들이 있 거든요. 그동안 어르신들 따라다니며 재밌게 듣고 보았는데, 자꾸 연로해지시는 이분들이 안 계시면 더는 들을 수 없게 되잖아요.”

70, 80대가 대부분인 수집가들 사이에서 어리고 젊은 층에 속한다는 주재운 대표가 나선 데는 이런 표면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청자를 만들어온 민족임에도 정작 후손인 우리는 잘 모르고 관심조차 없다는 것, 여기에 예전과 달 리 고미술 가격이 현격히 떨어지고 재화나 환금성 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요즘 상황에서-청자가-가격 뺨류가 없다고 뺨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주지 시키기 위해서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해외에도 고려청자의 아 름다움을 어필하기 위해 일본, 중국 북경 로케까지

마쳤다. 현재 코로나19로 잠시 유보된 상태지만 개 인 채널을 통한 기록영상 작업은 지속하고 있다.

“고미술이나 골동품 컬렉터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개인 소유나 소장을 넘어 공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끼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유명 컬렉터들이 결국은 많은 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많이들 사회에 환원하시잖아요.”

주재운 대표가 귀향을 결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길지 않은 인생,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누고 싶어 5년 전 강릉으로 돌아왔다는 그에게서 남다른 꿈이 읽혀진다. 그건 바로 고 향인 강릉에 청자뮤지엄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 문 화적으로 아쉽고 접근성이 어려웠던 시절의 강원 도가 아닌, 이제는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로컬이 힘 이 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CELADON COLLECTION



강릉시와 함께하는 '청자, 고려의 미시세계' 전시회 포스터

소유의 즐거움에서 공유, 나눔의 기쁨으로

청자나 골동품을 살 때는 돈이지만 사고 난 이후에는 작품이 되고 유물이 된다고 한다. 매매와 판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선물도 한다. 자신 또한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생각이 전환됐다는 주재운 대표. 지난해 부안청자박물관에 자신의 유물 중 학술연구 가치가 높은 고려청자 대반을 기증한 것도 그에 따른 행보다. 청자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귀향 후에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한약 나눔과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활동이 방송에 소개되고 그의 이름을 딴 헌정 맥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0년 안에 청자뮤지엄을 만들 계획이지만 그 전에 10월에 있을 전시회부터 잘 치르고 싶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 그의, 눈앞에 닥친 일정이다. 오는 10월 8일~20일까지 강릉시와 함께 명주 예술마당에서 ‘청자, 고려의 미시세계’라는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모은 작품 중 120여 점을 엄선했다. 공개되며 개인 소장으로는 국내 최고

의 규모라고 한다. 대중에게 선보일 그의 전시 컬렉션 홍보 끝에 화승원 방문 얘기도 잊지 않는다.

“화승원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작품이고 정원이 하나의 컬렉션이었어요. 화승원 자체가 하나의 컬렉션이고 최고의 예술품이었어요. 예전부터 현 회장님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허락만 하시면 유튜브에 모셔서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청자와 함께하는 그의 미래가 궁금했다. ‘청자뮤지엄의 채광 좋은 곳에서 청자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장면’이라고 마치 영화의 한 씬처럼 그의 미래를 표현한다. “골동품 좋아한다고 사람이 골동품 되면 안 된다”는 그의 뼈 있는 말속에 천년의 유물, 청자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청자’라는 한 우물을 넓고 깊게 파면서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즐기는 행복한 컬렉터, 주재운 대표의 미래 또한 청자빛으로 가득하길 기원해본다. 🚗

STATION

화승의 미션은 '지속적인 가치혁신, 기대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모든 고객이 즐겁게 다시 찾는 화승,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화승'입니다.
미션 클리어할 수 있도록 화승인 여러분, 파이팅합시다.

초록융단을 거닐며 초암정원을 누비다

-전라남도 보성, 초암정원을 찾아서

내리사랑이 아닌 치사랑이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낡으신 어머니와 기르신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 어린 누이에 대한 애처로움, 그리고 조상을 모시는 후손 된 도리를 꽃과 나무, 돌에 새겨 지금의 정원이 되었다.
전라남도 보성, 민간정원 3호로 지정된 초암정원 얘기다. 정원지기 김재기 선생이 들려주는 꽃과 나무, 그리고 아주 특별한 정원 이야기와 함께해보자.

개인 정원에서

개방 정원이 된

전라남도 보성의 초암정원

연중 푸른 차밭의 정취와 녹차의 향기가 가득한 전라남도 보성, 지리적 특성상 녹차 재배지로 유명한 이곳에 남도 특유의 꽃과 나무들뿐 아니라 애뜻하고 효심 가득한 이야기까지 품은 정원이 있다. 뒤로는 오봉산과 방장산 자락을 두르고 앞으로는 득량 들판과 바다를 품은 초암정원이다. 누대로 조상을 모셔온 선산이 지금의 정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60년 넘는 세월을 바친 정원지기가 있어 가능했다.

“애초부터 정원이다 뭐다 그런 거창한 거 아니었어요. 스물여덟 나이에 삼 남매 두고 눈 감으신 우리 어머니, 산소 한번 이쁘게 가꿔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것이예요.” 백발 성한 노구에도 먼저 가신 모친에 대한 정이 절절한 김재기 선생의 말이다. 열아홉, 대학 입학하면서 꽃과 나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시작되었다. 직장생활하면서도 주말을 이용해 묘목을 심고 가꿨으며 퇴직 후 여든셋이 된 지금에도 마찬가지다.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초암마을에 위치한 초암정원은 지난 2017년 전라남도 민간 정원 3호로 지정되면서 가족들만의 공간에서 외부에 개방하는 정원이 되었다. 방문객이 늘면서 해야 할 일, 신경 쓸 일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찾는 이들이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정원지기 김재기 선생은 광산김씨 문숙공파 23세손 김선봉 선생의 8세손으로 그동안 69,000㎡의 선산에 묘목을 심어왔다. 낳아주신 어머니 산소 주변을 시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가 힘들게 농사짓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이며 밭에다 묘목을 심었던 것이 세월과 함께 정원이자 숲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잘 다듬어진 초록 잔디 옆으로 나무가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인사하는 듯한, 초암정원의 나무가 인사하는 길.



1 260여 년 된 고옥(古屋), 세월의 무게로 지붕은 개량했지만 서까래와 대들보는 옛 모습 그대로인 사랑채와 안채. 2 정원지기가 반가운 이들을 맞으려고 미리 피었다고 자랑한, 초암정원의 향기로운 가을을 책임지는 금목서. 3 나무가 인사하는 길에는 잠시 날아와 앉는 새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이 담긴 돌확이 마련돼 있다.

사람의 정성과 세월이 빛은

꽃과 나무들의 세상

민간정원답게 여느 집 문간에 들어서듯 발을 옮기면 서까래가 살아있는 260여 년 된 고택이 먼저 반긴다. 사랑채와 안채가 있는 고택 마당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정원을 탐방할 수 있다. 오봉산과 방장산 사이 산자락에 조성되어 완만한 능선을 타고 오르듯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초암정원. 안내판에는 과수원길, 선영들 묘소, 편백숲 산책로와 대나무숲, 쉼터 정자, 초암정 가는 길을 표시하고 있지만 걷는 곳곳마다 희귀한 꽃과 나무, 크고 작은 암석들이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다. 아주 특별한 것이라면 윗대 조상과 어머니가 모셔져 있는-묘소에 이르는-400m 길에 초록 가득한 용단이 깔려 있다는 것.

“여가 그런 카펫이요, 우리 어머니가 버선발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지요.” 필생의 과업이 된 잔디 길에 담긴 선생의 마음이다. 콩나물 자라듯 하는 잔디를 관리하느라 한시도 게으를 수 없었고, 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을 지닌 꽃과 나무들을 보살피는 일이라 지인들이 함께하자는 골프채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3



초록 가득한 초암정원에 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득량 방조제와 예당평야를 바라볼 수 있다.



좌 전국에서 민간정원으로 대나무숲과 편백나무숲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



우 정원지기의 바지런한 손길이 느껴지는 초암정, 정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부모, 가족 간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정원으로



‘나무는 나의 얼굴’이라 말하는 초암정원지기, 김재기 선생.

초암정원에는 상록수와 열대 야자수를 비롯해 200여 종의 나무가 식재돼 있어 철마다 색다른 풍경을 자랑한다. 봄에는 붉은 매화와 노란 산수유가 만발하고 여름이면 살구와 앵두, 비파 열매가 주렁주렁하다. 가을이면 과수원의 감이 익어가고 윗지방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금목서, 은목서 향기로 가득하다. 겨울이면 개인 정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다화(애기동백)가 피어난다.

초암정원만의 또 다른 특별함이라면 마치 사람들을 향해 인사하는 듯한 나무 길이 있으며 우리나라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철갑을 두른 듯한 소나무도 볼 수 있다. 유럽 스타일의 직립팡팡나무나 블루엔젤 같은 색다른 정원수도 만날 수 있고 사시사철 푸른 편백나무숲에선 청신한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 대나무숲에 들어서면 청량한 바람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편백나무와 대나무 숲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정원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민간정원 3호 **초암정원**
전남 보성군 득량면 초암길 50-5 / 010-3555-9000

고요하고 정적일 것만 같은 정원 분위기지만 초암정원은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하다. 나무에 매달아 놓은 그네를 비롯해 방방 뛸 수 있는 트램펄린, 공중줄타기를 할 수 있는 줄라인 등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떠난 어린 누이에 대한 연민, 그리고 10명이 넘는 손주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었을까.

정원의 중심에는 묘석이 깔린 너른 잔디광장이 펼쳐져 있고, 한쪽에 놓인 쉼터용 정자가 운치를 더한다. ‘광풍정’이라는 현판이 걸린 정자에 앉으면 걸림 없는 시야가 펼쳐지고 위쪽 숲길로 좀 더 걸음을 옮기면 새로운 조망 공간인 초암정이 반겨준다. 가을하늘 만큼이나 높고 넓게 득량 들판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그동안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지금의 정원으로 가꿀 수 있었을까. 돈이 넉넉지 않아 묘목을 사서 심는 바람에 제대로 키우기 쉽지 않았고, 경험이 없어 나무 심는 간격이며 수종별 성장상태, 방풍을 위한 식재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 민간정원으로 제일 정성이 깃든 정원이다. 아열대 상록수종으로 최고 품격을 지닌 정원이다’라는 조정 및 정원 관계자들의 찬사는 그러한 시행착오의 결과라고 한다.

“일상이 꽃, 나무와 대화하는 것이고 나무는 나의 얼굴”이라는 김재기 선생, 자신의 노력과 정성은 당연한 것이고 60여 년 세월이 지금의 정원을 있게 했다고 강조한다. 어머니를 생각한 지극한 마음에서 비롯된 곳으로, 과일나무가 많아 누구든 와서 따먹을 수 있으며 새 한 마리도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돌확에 물을 채워 놓은 초암정원. 부모, 가족 간의 사랑뿐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 대한 귀중함까지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정원으로,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원해본다. 🚗

메타버스, 미래로 가는 제3의 혁명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의 경계에 선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서비스들은 예전과 비교해 새로울 게 없고, 메타버스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제페토’와 ‘포트나이트’ 같은 서비스들은 메타버스라기보다 온라인 게임에 더 가까워 보인다. 메타버스는 실체가 없는 또 하나의 마케팅 용어가 아닐까? 결론부터 내리자. 메타버스는 미래로 가는 제3의 혁명이자, 이미 시작된 미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와 현재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는 ‘조월하다’는 뜻의 메타(meta)와 ‘세계, 우주’라는 뜻의 유니버스(universe)를 조합한 말로 ‘조월 세계’를 의미한다. 1992년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언급된 후 ‘가상 세계’를 뜻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 가상 세계는 VR과 AR로 구현되는 초현실적인 세상과 네이버 Z의 ‘제페토’나 펠어비스의 ‘도깨비’와 같은 오픈형 RPG 게임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2020년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면 앞으로 20년은 SF나 다를 바 없다”며 ‘메타버스의 시대’를 선언했다. 2021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5년 안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했고, 국내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현대차, 네이버랩스 등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이미 메타버스를 통해 엘지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등의 대기업은 신입사원 연수를, 차기 대선주자들은 선거캠프를, 케이팝 스타들은 사인회와 공연 등의 활동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김래아’를, 신한라이프는 ‘오로지’라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제품 소개와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K-메타버스 연합군



출처: 제페토 인스타그램

정리하자면 메타버스는 현실을 가상의 세계로 구현해 놓아 누구나 자신의 아바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도 높은 공간’을 말하며, 이 공간을 만드는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의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기술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메타버스는 거품으로 보일 수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메타버스 마케팅

그렇다면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아바타로 접속해 일할 수 있고,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으며 가상 세계의 경제활동이 현실 세계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상품과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일도 가능하다.

나이키, 구찌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페토와 제휴해 콜라보 상품을 판매하거나 CU 편의점이 입점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트래비스 스콧과 같은 가수가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하는 건 수많은 팬들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창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2019년 오프라인 투어에서는 19억, 2020년 포트나이트를 통해서는 2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페이스북이 발 빠르게 뛰어든 이유는-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면 가상의 세계에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공간이 되기에-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9월 1일,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를 시공간 제약 없이 체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설립해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보고 들으며 사용자 간 소통이 가능한 메타버스를 도입했다.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는 연내에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차 등을 주제로 한 5가지 가상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국내 금융권과 대기업들은 제페토에서 신입사원 행사를 진행하거나, 자신들의 회사를 닮은 공간을 만들어 홍보용으로 쓰거나 이프랜드(ifland)에서 특강, 시상식을 해왔다. 게더타운을 통해 사무실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아바타로 출근해 회의와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혼란스럽지만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뉘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VR과 AR로 구현되는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 제페토로 대표되는 SNS형 메타버스, 게더타운과 이프랜드와 같은 회의·업무용 메타버스,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형 메타버스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볼 수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뛰어어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메타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제2의 혁명이었던 스마트폰 이후 모바일 혁명을 기회로 삼은 카카오, 배달의민족과 같은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기업들은 조용히 잊혀졌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 중 어느 곳이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고객들과 현재의 고객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미리 뛰어들어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선점효과도 크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로 가는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3가지에 집중하자. 첫째,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경험하며 조직과 개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둘째는 릴 미켈라, 오로지, 김래야 등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에 관심을 가진다. 셋째 신입사원 환영회, 팀 회의 등 아주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로 적용해본다.

고객들이 메타버스에 있다. 경쟁사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버스 출발한 뒤 손 흔드는 자들을 너그럽게 태워줄 버스는 이 세상에 없다. 하물며 초월 세계에서는. 현재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자 올라타야 할 시점이다. 🚗

HWASEUNG NEWS

희망의 등지, 새롭게 오픈하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신축 이전 개소식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가 부산 부곡동으로 신축 이전했다. 2003년 부산 아미동(부산대병원 인근) 첫 개소 이래로 한결같이 부산경남지역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의 그루터기가 되어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사무소였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운영에 여러 제약이 많았다. 이에 협회 이사진은 환아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전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부곡동으로 이전을 마쳤다.

6월 18일 개소식도 진행되었다. 개소식에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박동호 지회장을 비롯해 부산지회 이사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허인영 사무총장, 부산경남지역 병원부모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부산지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박동호 부산지회장은 “부산지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회 이사진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의 많은 후원기업과 개인회원들의 도움,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고 동행하는 환아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아청소년암 환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승그룹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의 2003년 첫 개소 때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해오고 있다.

민·관 협력의 새로운 출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화승코퍼레이션 방문



지난 7월, 경상남도 박종원 경제부지사가 화승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경남도청 박 경제부지사와 양산시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화승코퍼레이션 허성룡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석현 부사장, 윤우원 상무 등 임원진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에서 화승코퍼레이션 허성룡 대표이사는 화승R&A의 자동차 부품, 화승소재의 고무 소재, 화승코퍼레이션의 친환경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진행 중인 방산 사업 제품을 소개하며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박 경제부지사와 함께 논의했다.

이에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경상남도 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지역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부품 국산화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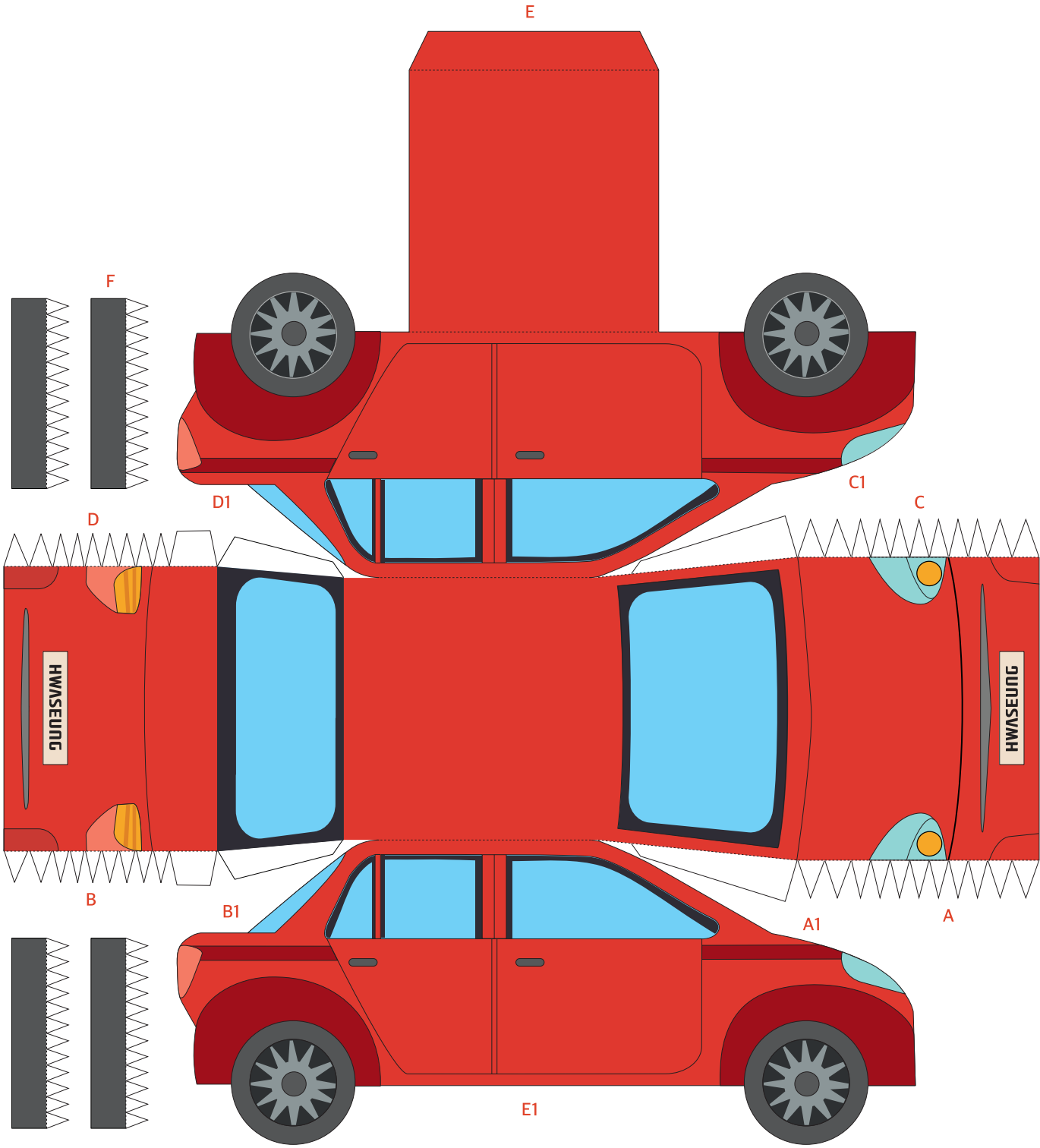
자원을 생각하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와 맵시 있는 빨간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승용차. 어떤 차를 갖고 싶으세요?
둘 다 갖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쓱쓱 오리고, 착착 붙여 만들어보세요. 화승 차차차로 자동차도 만들고, 가족들과
즐거운 레이싱도 하면서 특별한 하루를 완성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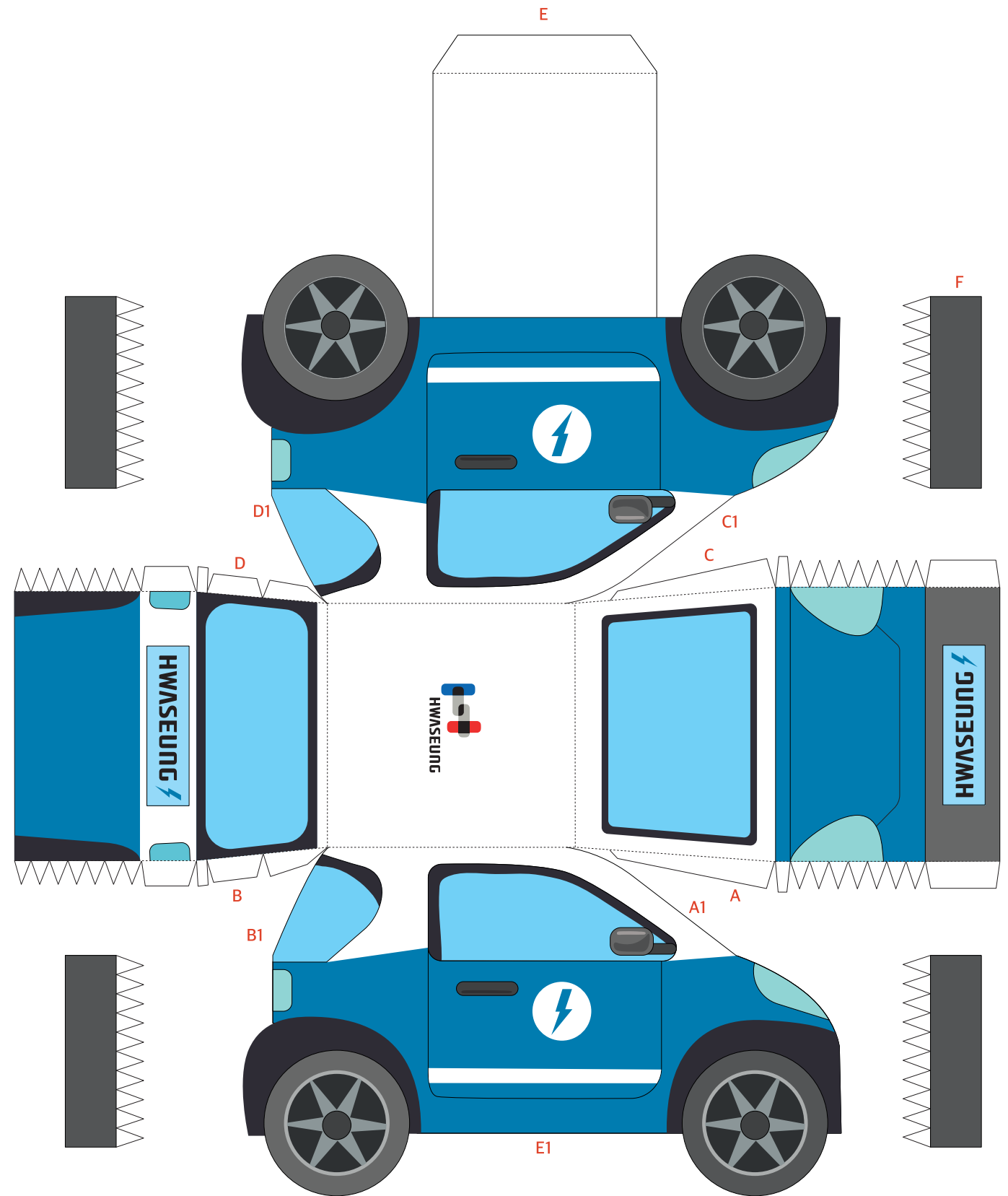
만드는 법[검은 실선, 겹면 기준]

- 1 자동차 바깥 실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 2 자동차의 바깥접음선(-----)에 자를 대고 칼등으로 약하게 칼집을 내주세요.
- 3 A, B, C, D의 시점에 풀을 칠해주세요.
- 4 A1, B1, C1, D1에 붙여주세요.
- 5 E의 사각시점에 풀을 칠하고 E1에 붙여주세요.
- 6 안정감 있는 바퀴를 만들기 위해 4개의 F를 잘라주세요.
- 7 F의 바깥접음선(-----)에 자를 대고 칼등으로 약하게 칼집을 내어 접어주세요.
- 8 4개의 F를 각각의 바퀴 밑에 둥글게 붙여주세요.

준비물
가위, 칼, 풀, 투명테이프, 자,
커팅매트(없을 시 두꺼운 신문지나
유리바닥 활용)

소요시간
자동차 1대 30분





안되는 게 없는
화승네트웍스



무역과 생활은
글로벌 종합무역회사
화승네트웍스로 통합니다

hsnetw.co.kr



WANTED



화승 70년,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찾습니다!



2023년, 70주년을 맞이하는 화승그룹은
여러분과 100년을 향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고자 합니다.

소중했던 시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전,
화승그룹과 울고 웃었던 추억, 빛바랜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화승그룹의 70년 역사를 추억하는 사진, 물건, 그에 얹힌 사연을
보내주세요. 흑백사진, 옛 기념품, 세월의 흔적이 쌓인 서류, 첫 월
급봉투 등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동양고무 #풍영화성 #화승화학
등 화승그룹의 옛이름이 들어간 자료 또한 열렬히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화승그룹 홍보팀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6층

이메일: illwook.sim@hscorp.com

문의전화: 051-850-7037

※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모두 환영